

국내 첫 '벤츠 AMG 서울' 오픈... 고성능 마케팅 드라이브

세계 6번째 AMG 브랜드 센터
AMG 브랜드 판매 급진적 성장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 선점 노력

메르세데스-벤츠 AMG 브랜드 센터가 서울에도 문을 열고 국내 고성능차 시장 전쟁에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추후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도 고성능 전략이 필수적이라는 평가, 자동차 업계 고성능 마케팅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한성자동차는 9일 AMG 서울을 공식 오픈했다.

AMG서울은 국내에서는 첫 AMG 브랜드 센터로, 전세계적으로도 6번째로 열렸다. AMG 드라이빙 센터와 AMG 드라이빙 아카데미와 함께 국내 고성능차 소비자를 적극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한성차는 'F.E.E.L the AMG 서울'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사용자 경험에 초점을 맞췄다. FEEL은 'First(고객 우선)' 'Exclusive(AMG에 특화된 서비스)' 'Experience(경험)' 'Leap(고객 서비스 도약)'을 뜻한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토마스 클라인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한성자동차 대표 울프아우스프롱

이를 위해 고객 응대와 상담을 본사 전문 교육을 수료한 '익스퍼트'에 맡겼으며, 윈스톱 서비스와 함께 AMG 성능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AMG 사운트 카운터와 게이밍 존 등을 구성했다.

AMG도 전동화 노력을 이어가는 상황, 추후 전동화 AMG도 선보일 계획이다. 한성차는 "벤츠는 모든 제품 라인업에 전동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AMG 서울에서도 벤츠 코리아가 국내에 선보이는 라인업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울프 아우스프롱 한성자동차 대표는

"한성자동차는 고성능 차량과 모터스포츠를 즐기는 국내 고객들의 증가하는 니즈에 부응하고자 AMG 브랜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며, "국내 최초 AMG 브랜드 센터인 AMG 서울을 AMG의 DNA를 직접 경험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한, AMG 팬들을 위한 '머스트 비짓 플레이스'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벤츠는 국내에 AMG 라인업 확대를 선언하는 등 고성능 마케팅에 힘을 쏟아왔다. AMG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한성차, 벤츠가 AMG서울



AMG 서울

/한성자동차

까지 론칭한 이유는 국내 고성능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AMG 브랜드 판매량만 최근 들어 연 50% 안팎으로 성장하고 있고, AMG GT만 보면 전세계 3위라는 게 벤츠 측 설명이다.

벤츠뿐 아니다. BMW는 선제적으로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에 투자한바 있으며, M 브랜드를 재편한 후에는 라인업을 대폭 확대하며 온라인을 통한 한정판 판매도 대폭 늘렸다. 아우디 역시 RS Q8 등 고성능 모델을 적극 들여오며 고성능차 시장을 뜨겁게 만들었다.

현대차도 N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정

착시켰다. 벨로스터 N에 이어 투싼과 아반떼까지 N으로 출시, 50% 이상 비싼 가격에도 적지 않은 판매량을 이어가고 있다.

고성능 마케팅은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일반차 판매량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전언이다. 고성능 모델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지 않지만, 고성능 이미지로 일반 모델 판매량을 늘릴 수 있다는 것. 실제로 BMW M 패키지와 현대차 N 라인 등 고성능차는 아니지만 디자인을 차용한 트림 판매량이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김재홍 기자 juk@metroseoul.co.kr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오렌지택배' 론칭

CJ대한통운, 세번째 '상생 모델'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서 개소식

CJ대한통운이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해 나선다.

CJ대한통운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택배일자리 사업 '오렌지택배'를 본격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오렌지택배는 시니어층을 위한 '실버택배', 장애인을 위한 '블루택배'에 이은 CJ대한통운의 새로운 택배 상생 일자리 모델이다.

이를 위해 이날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LH 35단지 커뮤니티 센터에서 오렌지택배 개소식이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CJ대한통운, LH경기지역본부, 해피오렌지, 화성시, 경기광역자활센터, 화성지역자활센터, LH 35단지 관리사

무소, 화성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9개 기관이 참여했다.

오렌지택배는 아파트 단지 안에 마련된 거점까지 운송된 택배물품을 경력단절여성 배송원이 각 가정까지 배송하는 라스트마일 서비스다. 택배기사가 택배터미널에서 물품을 인수해 각 가정까지 배송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거점형 택배인 오렌지택배는 택배차량이 거점에 택배물품을 하차하면 배송원이 맡은 구역별로 방문 배송한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동거리가 짧고 노동 강도가 낮는데 비해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CJ대한통운이 모델화해 안정화를 이룬 실버택배, 블루택배와 같은 방식이다.

동탄2신도시 LH 35단지 전체 1768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오렌지택배에는 아파트 입주 주민 및 인근 LH아파트 단지에서 거주하는 경력단절여성 4명이 배송원으로 일하고 있다. 지난 12월부터 9개월 동안의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재는 배송원 일인당 월 평균 1300개의 택배를 각 가정에 배송하고 있다.

오렌지택배 배송원 장명희(46)씨는 "경력단절 기간이 길어 일자리를 얻기 힘들었는데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감사한 마음"이라며 "오렌지택배 배송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웃에게 행복을 전달한다는 마음으로 택배를 배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중기부, 수출 중소기업에 최대 2000만원 바우처

추경 통해 109억 예산 마련

정부가 수출 중소기업들의 물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105개사에 최대 2000만원의 물류전용 바우처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9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쏟아붓는 2021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의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9월 해상운임이 지난해 초 대비 4배 이상, 올해 초와 비교해선 1.5배 이상 오르는 등 중소기업들의 물류비용이 급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지난 7월 추경예산 109억원을 확보해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을 신설했다.

'일반물류 지원분야'에 뽑힌 1039개사는 물류전용 바우처를 통해 수출바우처사업 누리집의 국제운송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물류사에 관계없이 해상·항공운임 및 보험료를 최대 2000만원(정부보조율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물류 지원 분야에 선정된 아로마티카 김영근 대표는 "수출경기는 작년에 비해 많이 좋아졌지만 물류비가 급등해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이번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이 물류비 상승으

로 인한 회사의 어려움을 많이 해소해 줄 것 같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장기운송계약 지원분야'에 선정된 66개사는 국적선사 HMM과 장기운송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미주 서안으로 가는 정기선박에 200TEU의 선적 공간을 제공받아 수출품 운송에 승통이 트일 전망이다.

중기부 강기성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중기부는 수출바우처 사업을 통한 국제운송비 지원 외에도 '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사업',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사업 등 중소기업 물류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서 "수출물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은 해당 사업들을 적극 이용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이철환 빈센 대표는 수소연료전지 소형선박 시장서 테슬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한창대 기자

"소형선박계 테슬라 목표"

빈센, 글로벌 시장 공략 '시동'

해수부 '예비 오션스타 기업' 선정
연말까지 하이드로제니아 시운전

"빈센은 소형선박 시장의 테슬라가 목표입니다."

'2021 수소모빌리티+ 쇼'에서 9일 만난 이철환 빈센 대표는 이 같이 밝혔다.

국내 전기-수소 소형선박 제조업체 빈센은 올해로 4년 차를 맞은 친환경 소형선박 제조 스타트업이다. 수소연료전지와 배터리를 활용한 기술을 조선 및 해양에 적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해양 산업을 지향한다. 지난해에는 정부에서 선정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선정됐고 올해는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예비 오션스타 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이철환 대표는 이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수소연료전지 소형선박은 전 세계 모든 업체들이 출발선에 서 있는 상태"라면서 "국내 조선 업계의 베테랑이 모인 빈센은 수소연료전지 소형선박 시장에서 선두로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자신했다.

국내 조선업계는 전 세계 조선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중소형 레저 선박 시장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유럽 등 글로벌 중소형 레저 선박 시장의 디자인 등의 견고함으로 인해 국내 업체는 시장에서 외면 받는 수준이다.

이대표는 수소연료전지 소형선박으로 관점을 바꾸면 기술은 물론 선박 디자인도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면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빈센은 수소모빌리티+ 쇼에 자사에서 개발한 수소연료전지와 배터리를 동시에 탑재한 레저용 소형선박 '하이드로제니아'를 선보였다. 빈센은 현재 울산·경북·강원에서 진행 중인 규제자유특구의 특구사업자로 선정돼 연구개발과 특구사업을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하이드로제니아 시운전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이대표는 올 연말에는 수소 선박 제작과 관련해 안정적인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했다. /한창대 기자 cdl@